2004년 11월 18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창립 30주년 축하 메시지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창립 서른 돌을 맞이했습니다. 염무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회원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30년 전 여러분은 혹독한 유신독재에 맞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긴급조치 등 숱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문학인 101인 선언'으로 시작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활동은 민족문학작가회의로 이어져 정의와 양심의 펜이 불의한 총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같은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늘 한층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원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보다 열 배 이상 늘어난 1,100여명의 작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